



매체포교 이정표 다시 세운다



축하 휘호

霜松潔操(상송결조)
水月虛襟(수월허금)

서리와 소나무같이 지조를 깨닫이 가지고
물에 담긴 달과 같이 웃음을 열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석주 스님 (철보사 조실)

정론직필 기치 더 높게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 언론 창달과 한국불교의 업을 심어온 현대불교가 10년의 세월동안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공을 세웠음은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의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정론직필의 기치를 더욱 드높이시고 인터넷 사이트 '붓다뉴스'를 통한 포교와 한국불교의 우월성을 널리 퍼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승적인 눈필로써 어두운 사회의 등불이 돼, 자리아타의 정신을 고루 심어서 고통 받는 계층이 없게 하고 생명존중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 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불교는 21세기 대안사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대약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불자의 긍지로 자리매김

정동채(문화관광부 장관)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현대불교'를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10월 15일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이제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언론·정보 매체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우리나라 불교계 최대의 인터넷 일간신문인 '붓다뉴스'를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불교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 더욱 사랑받는 신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출판 '여시아문'을 통해 불교 출판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창간 이후 1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세계를 향한 한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부처님의 가피력 속에서 온 불자들의 긍지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기를 축원합니다.

존중과 사랑의 덕목 답아

정진석 대주교(가톨릭 서울대교구장)



가톨릭 신자들이 대표해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문명한 길을 제시하고 가치질서를 세우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는 불교와 가톨릭간의 대화와 만남을 통한 공동선의 증진은 사회의 그릇된 폭력과 증오, 불의와 부정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사랑은 아집과 편견,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가득한 현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불자 뿐 아니라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설파해서 우리 사회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 바른길 제시한 공 커

운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현대와 같이 정보화·산업화 시대에 불교 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보의 교류와 함께 사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공동선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 또한 세속에 물들고 금전과 물질주의에 감응돼 종교로서의 바른길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와 교육(수행)분야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참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현대 불교 신문은 이 분야에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우리나라가 건전한 복지국가로 발전해 가는데 그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식정보화사회 이끌길

운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창간 10주년을 천태종도들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불교 언론은 포교에 1차적 역할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대불교'의 지난 10년은 포교적 사명에 충실하고자 함으로써 교계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쌍방향성 매체가 시대를 이끄는 국제정보화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교계매체에 비해 이미 한발 앞선 온라인 '붓다뉴스'를 더욱 강화해 국내불자는 물론 전 세계인이 접할 수 있는 불교매체를 만드는 일은 '현대불교'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세계화이며, 포교적 사명을 다하는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괄목할 포교업적에 박수

효암 정사(진각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불교는 디지털시대 불교의 미래를 밝혀오는 데 정진해 선진 포교불사와 불법홍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은 부강한 국가, 지혜로운 국민이라는 이원적 목표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먼저, 국민의 자주성을 길러줘 자주국가의 확립이 선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자립정신을 심어주는 데는 역시 불교 사상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가 훌륭한 대안 사상이로서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10년간 정성어린 미디어 불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대중화에 커다란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초발심의 열정으로 한국불교발전의 장원한 기둥을 쌓아나가길 기원합니다.



축화

“전법의 사명 불길처럼...”

조향숙(화가)

인간 심성 단련에 큰 역할

백도웅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우리 민족사에 불교가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민족의 정신에 미친 영향은 물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보여준 구국의 노력은 참으로 위대한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대한 영향은 현대불교신문이 지향하는 생활화, 세계화, 현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을 때 종교의 참맛이 살아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불교신문은 자칫 세상사와 유리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한 심성을 훈련시키고 단련하는 중요한 도구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제 역할을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한국불교는 물론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정신 향도 큰 일 더 하길

이혜정 교무(원불교 교정원장)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출발한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물질만능과 도덕적 가치의 몰락, 인간성 상실 등의 물질노예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현 시대를 당해, 우리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인류사회를 낙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 1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현장에 접목시키고 바른 수행과 참 불자의 삶을 이끄는 법불교 정진지로 자리매김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류의 정신세계를 향도해 가는 신문사로 더욱 발전하기를 염원합니다.

인터넷포교 이끄는 언론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현대 불교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달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는 정보전달의 신속성에 현대불교신문이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현대불교신문이 수행과 포교,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불교 언론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지지 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간 10돌을 맞으며 현대불교신문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환희·지혜로 온 세상 비취

명성 스님(전국 비구니회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는 신문으로서 수행포교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이웃에게 불교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불자들이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희로운 지혜를 온 세상에 비추신 것처럼 언제나 불자들의 눈높이에서 부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비구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 불자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